

No.64
June 30 2018

월간

극지해소식

북극 소식 북극이사회/국제기구
북극국가 정책
북극비즈니스/북극해항로/자원개발

남극 소식

이슈 분석

본 소식지는 '북극권 해양수산 협력기반 강화사업' 일환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소식지에 대한 질의나 코멘트,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시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주 임진수 석좌연구위원 **책임** 김민수 극지연구센터 센터장
▶ 연락처 : 김지영 051) 797-4765 (jyeong111@kmi.re.kr)

작성 김지혜, 이슬기, 김지영, 정유민, 조용성, 이동은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안로 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북극이사회/국제기구

• 일루리샷 선언문 10주년 기념 고위급 북극 회의 열려 (2018.5.18)

북극 연안 5개국(미국, 캐나다, 러시아, 덴마크, 노르웨이)이 10년 전 일루리샷 선언문이 서명된 그린란드 일루리샷에 다시 모여 고위급 회의를 개최했으며, 기후변화로 위협을 받고 있는 북극에서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임을 재확인하였음.

또한, 일루리샷 선언문 서명 10주년을 기념으로 캐나다와 덴마크는 한스섬 경계선 문제를 종결하기 위한 태스크 포스 설립을 발표하였음.

*일루리샷 선언문은 2008년 5월 28일 그린란드 일루리샷에서 북극해 연안국 5개국이 모여 북극해 연안 5개국 사이에 영유권 분쟁이 심화될 경우 법적으로 해결할 것을 합의한 선언문임.

(<http://um.dk/en/news/newsdisplaypage/?newsid=c26bc6ee-f208-43da-a8b6-1923a3fd5824>, <https://www.cbc.ca/news/canada/north/canada-denmark-battle-ownership-hans-island-1.4679142>)

• 북극경제이사회, 연례회의 개최 (2018.6.13)

지난 5월 북극경제이사회(AEC) 2018년 연례회의가 AEC 회원기업인 LKAB의 주최로 스웨덴 키루나에서 개최되었음.

금번 연례회의에서 2019년부터 시작되는 AEC의 새로운 전략계획(안)과 AEC의 5대 목표의 변경사항도 승인되었음.

또한, AEC 회원들은 북극 비즈니스 개발과 협력 기회에 대한 논의와 함께 노보톤(Norrbotten) 상공회의소 발표를 통해 스웨덴 북부지역의 사업 기회 및 도전 등에 대해 배울 수 있었음.

이외에도 북극환경영향평가(Arctic EIA) 워크숍이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AEC가 참여하고 있는 북극이사회 지속가능개발워킹그룹(SDWG) “북극에서의 환경영향평가와 공공참여를 위한 모범 관행 권고(Good Practice Recommendations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Public Participation in the Arctic)”사업에 대한 소개가 있었음.

(<https://arcticeconomiccouncil.com/aec-annual-meeting-2018-in-kiruna/>)

북극이사회/국제기구

• SpareBank1 Nord-Norge, 북극경제이사회 북극 파트너 회원으로 가입 (2018.6.13)

스페어뱅크1 노드-노르게(SpareBank1 Nord-Norge)가 금융업체로는 처음으로 북극이사회 북극 파트너(Arctic Partner) 회원으로 가입하였음.

동사는 노르웨이 북극권의 민간 및 기업 시장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노르웨이 트롬쇠에 본사를 두고 있음.

테로 바우레스테(Tero Vauraste) 북극경제이사회 회장은 투자와 금융은 북극 발전에 있어서 중요하며, 금융부문에서 북극경제이사회 회원으로 가입한 첫 회원인 스페어뱅크1 노드-노르게사를 환영한다고 밝혔음.

(<https://arcticeconomiccouncil.com/arctic-economic-council-welcomes-sparebank-1-nord-norge-as-arctic-partner/>)

• 북극경제이사회,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 (2018.6.4)

북극경제이사회(AEC)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듯한 보호무역주의 조짐이 북극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음.

AEC는 북극권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는 자유무역주의의 보장이 매우 중요함을 역설하면서 보호주의는 북극의 책임감 있는 경제개발을 저해한다고 밝혔음.

또한, 북극과 같이 도전적인 환경에서 책임감 있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신 기술과 지식의 유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제한 없는 기술의 이전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음.

(<https://arcticeconomiccouncil.com/press-release-the-arctic-economic-council-expresses-concern-over-signs-of-increased-protectionism/>)

북극국가 정책

미국

• 미 국방부 장관, “미국 북극에서 뒤흔쳐” (2018.6.26)

매티스(Mattis) 미 국방부 장관이 북극권 지역의 온난화로 새로운 항로가 열리고 석유 및 광물자원 채굴이 가능해지는 등 점차 발전하고 있는 북극지역에서 미국의 존재감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덧붙여 그는 특히 더 많은 미 연안경비대가 북극권에 배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현재 러시아는 북극권 지역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고,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을 북극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등 북극 진출이 두드러지면서 북극권 국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미국은 자국의 북극 장기전략 목표를 재검토하기 시작하였음.

(<https://www.arctictoday.com/americas-got-game-arctic-says-defense-secretary-mattis/>)

• 북극으로 향하는 러시아 부유식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미국의 대응 강화 (2018.5.27)

러시아 국영 원자력발전회사 로스아톰(Rosatom)은 지난 5월 19일 러시아 북서부 북극해 연안도시 무르만스크에서 세계 최초 부유식원자력발전소 “아카데믹 로모노소프(Akademik Lomonosov)”를 언론에 공개하였음. 해당 회사의 수석집행관에 따르면 이 부유식 원자력발전소는 길이 144미터, 너비 30미터의 바지선으로 35메가와트급 원자로 두 기를 탑재하고 있음. “아카데믹 로모노소프”호는 2019년 여름 경 러시아 동북부 축치자치구의 페벡항에 도착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 및 항만시설, 석유가스 채굴활동에 대한 전력을 제공할 예정임.

중국인민대학 중앙금융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무르만스크와 페벡은 전형적인 북극항만에 해당함. 무르만스크는 연간 부동항이자 러시아 북극지구의 최대 도시이며, 페벡은 약 5천명의 인구와 공항 및 항만을 보유한 북극항로상의 발전 잠재력이 높은 도시로 평가됨.

러시아는 최근 북극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있음. 푸틴 대통령은 지난 21일 강연을 통해 북극 연구 및 개발에 대한 러시아의 높은 관심을 드러내며 북극항로의 개발 속도를 높이고 운수량을 대폭 증강할 것을 강조하였음.

한편 북극 내 러시아의 다양한 움직임과 관련하여 미국은 강한 위기의식을 표출하고 대응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음. 최근 진행된 미국 상원 공청회에서 미 상원의원 리사 머카우스키는 “지난 10년 간 북극 내 러시아의 활동이 빈번하였으며 특히 최근 1년간 활약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미국의 북극전략은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이에 미국 국방부장관은 해안경비대에 신형 쇄빙선을 배치하고 타국과 적극 협력하여 북극전략에 대한 소요 경비를 충당하겠다고 답변하였음.

현재 미국 해안경비대는 겨우 두 대의 쇄빙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대형쇄빙선은 남극활동에 주력하고 있음. 그러나 러시아는 다수의 원자력 쇄빙선을 포함한 수십 대의 쇄빙선을 보유하고 있음. 미국은 6대의 쇄빙선을 추가하고 러시아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http://world.people.com.cn/n1/2018/0527/c1002-30016158.html>)

북극국가 정책

캐나다

• 캐나다 최초의 북극대학교, 2020년 개학 예정 (2018.6.24)

캐나다 유콘준주에 위치한 유콘 전문대학(Yukon College)이 유콘대학(Yukon University)으로 전환되면서 캐나다의 첫 북극대학교가 2020년경 설립될 예정임.

1970년대 중반 유콘준주의 14개 원주민 단체가 북극권 대학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작성한 “Together Today for Our Children Tomorrow”라는 문서를 당시 총리에게 전달했음. 관련 법안은 무려 50년이 지나 통과되었음.

유콘준주는 대학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1,500만 달러를 제공했고, 학교는 6,500만 달러의 모금 캠페인을 시작했음.

(<https://www.theweathernetwork.com/news/articles/canada-to-launch-first-arctic-university-north-2020-yukon-college-indigenous-governance-business-administration-northern-studies-climate-change-sustainability-innovation-travel-first-nations/105173>)

노르웨이

• 노르웨이 국회, 요한 카스트버그 유전개발계획 비준 (2018.6.13)

노르웨이 국회는 지난 6월 11일 노르웨이 국영 석유기업 에퀴노르(Equinor)가 제출한 472억 노르웨이 크라운(58.5억 달러) 규모의 북극 바렌츠해 요한 카스트버그 유전개발계획을 비준하였음.

2022년 생산을 개시하게 될 요한 카스트버그 유전은 2016년 생산을 개시한 이탈리아 석유회사 에니(ENI)의 골리앗 유전을 잇는 바렌츠 해 두 번째 유전이 될 예정임.

에퀴노르는 지난달 스타토일(Statoil)에서 명칭을 전환한 노르웨이의 국영 석유기업으로 석유에서 풍력에너지 등 다양한 부문에 역량을 지닌 대형 에너지기업임. 에퀴노르는 원가절감을 위해 육상 석유터미널 건설은 포기하였으며, 노르웨이 국회는 2018년 연말까지 이에 관하여 조사하고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음.

(http://www.sinopecnews.com.cn/news/content/2018-06/13/content_1710194.shtml)

북극국가 정책

러시아

•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시스템, 극동연방지구와 북극의 주요항구로 확대할 것을 제안 (2018.5.15)

최근 ‘북극 및 극동 지역 정책 문제’ 위원회가 러시아 북극지역의 모든 주요 항구로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시스템의 확대를 요청하는 제안서를 러시아 정부에 제출하였음.

니콜라이 하리토노프(Nikolay Kharitonov) 위원장은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에서 “북극항로는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잇는 연결고리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이 가지는 조세우대 제도를 극동과 북극 지역의 주요 항구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북극과 극동 지역의 기업가들 또한 우리에게 시스템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라고 언급하였음.

블라디미르 푸시카레프(Vladimir Pushkarev) 부위원장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러시아 북극 지역 개발에 관한 법률’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여기에는 개발 거점 지구와 같은 경제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자유항 체제를 북극과 극동 지역의 주요항구로 확대하는 것은 북극항로 개발을 자극하는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과 민간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함.

하리토노프 위원장은 TASS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정부는 이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현재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http://www.arctic-info.ru/news/15-05-2018/v-gosdume-predlozhili-rasprostranit-rezhim-svobodnogo-porta-na-klyuchevye-porty-dfo-i-arktiki/>)

• 군사용 쇄빙선 ‘일리야 무로메츠’(Ilya Muromets)의 시운전 완료 (2018.5.7)

북극함대의 새로운 쇄빙선이자, 세계 최초의 군사용 쇄빙선인 ‘일리야 무로메츠’(Ilya Muromets)가 최근 빙하에서의 시운전 테스트를 마쳤으며, 귀항 길에 전략 미사일 순양함인 ‘유리 돌로루키’(Yury Dolgoruky)를 인도하였음. 쇄빙선의 시운전은 1.5미터의 빙하가 덮인 바렌츠 해(Barents Sea)에서 진행되었으며, 총 19일이 소요되었음.

견고성 테스트 이외에도, 연구 장비를 옮기는데 필요한 선박 내 크레인 테스트도 실시되었음. 테스트 마지막에는 ‘일리야 무로메츠’가 ‘백해’(White Sea)를 지나는 전략 미사일 순양함인 ‘유리 돌로루키’(Yury Dolgoruky)를 인도하였음.

쇄빙선 ‘일리야 무로메츠’(Ilya Muromets)는 원자력 쇄빙선이 아닌 디젤 전기 쇄빙선으로, 배수량은 6,000톤, 길이 85m, 내구성 2개월, 1회 주유로 5,500km까지 운항할 수 있음.

(<http://www.arctic-info.ru/news/07-05-2018/zaversheny-ispytaniya-voennogo-ledokola---ilya-muromets/>)

• 러시아 대통령, '국가의 국경 정책에 관한 기본 법령' 마련 (2018.4.27)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국경 정책에 관한 기본 법령을 승인했으며, 본 법령이 실현될 수 있도록 러시아 정부에 권한을 위임하였음. 관련 법령은 법률 정보를 공시하는 포털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음.

현 법령에는 “국경 활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경에 위치한 FSB, 러시아 내무성, 러시아 연방 방위군(Rosgvardia), 그리고 위생, 검역 및 통제 기관들의 운영과 기술적 잠재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국경에서의 위기상황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부처 간 협력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음. 현재 국경 방위에 사용되는 무기와 기술 장비의 수가 매년 5-10% 증가하고 있으며, 48개국과 국경 정책에서 협력 중임.

또한 동 법령에는 “주로 외부요인으로 인한 도전과 위협이 있으며, 국경의 특정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특히 북-서부와 서부 지역에 NATO 기반 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며, CIS 국경 안팎에 위치한 특정 지역에 긴장감을 발생시키는 여러 요인들이 남아 있고, 테러리즘과 극단주의의 확산 및 초국가적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국경 정비에 있어서는 국가 안보를 위해 ‘남서부 지역 국경 인프라 현대화, 북극과 극동지역 사회 및 국경 인프라 시설 설치, 그리고 승객 및 교통이 집약되는 통관소의 건설 작업과 기술 장비 마련’이 거론되고 있음.

국가 간 국경 협력은 “러시아와 이웃한 국가들의 우호 관계 속에서 가능하며, 국경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분쟁 없이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동 법령은 1996년 10월 5일부터 시행된 러시아 국경 정책의 과거 기본 법령을 대체하기 위해 채택되었음.

(<http://www.arctic-info.ru/news/27-04-2018/prezident-rossii-utverdil-osnovy-gosudarstvennoy-pogranichnoy-politiki/>)

• 내빙 자가추진 플랫폼 ‘북극’(North Pole), 48명의 과학자들이 1년 내내 북극에서 연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임 (2018.5.8)

지난 5월 내빙 자가추진 플랫폼 ‘북극’(North Pole)의 설계가 시작되었음.

이것은 극지 해양(polar water)에서의 지속적인 연구와 북극해(Arctic ocean)에서 발생하는 여러 현상들을 살펴보기 위한 시설임. ‘북극’(North Pole) 플랫폼은 본체가 아주 견고하고, 2년간 운행 가능하며, 수명이 최소 25년일 뿐만 아니라, 14명의 승무원과 48명의 과학자들을 태울 수 있는 특수 선박임. 전 세계에 이와 유사한 선박은 찾아보기 어려움.

이 선박에 설치된 장비는 지질, 음향, 지구 물리 및 해양 관측을 가능하게 해주며, 쇄빙선 없이도 빙하 속에서의 자율 이동이 가능하며, 또한 Mi-8 타입의 무거운 헬리콥터가 이착륙 할 수 있는 곳이 마련되어 있음.

플랫폼의 길이는 67.8m, 길이 22.5m, 배수량 7,500톤, 발전기 출력량 3,600kW, 속력은 10노트임.

플랫폼 시공은 2019년 상트페테르부르크(St. Petersburg)에 있는 ‘해군 조선소’(Admiralty shipyards)에서 진행될 것이며, 2020년에 인도될 예정임.

(<http://www.arctic-info.ru/news/08-05-2018/48-uchenyh-smogut-kruglyy-god-rabotat-na-severnom-polyuse/>)

• 러시아, 페로제도(Faeroe islands)에서 열린 포럼에서 북부 허브 개발 구상 제시 (2018.5.10)

지난 5월 페로 제도(Faeroe islands)에서 “북극 허브, 역동적인 경제 발전과 북극의 지속적인 개발”을 주제로 북극서클(Arctic Circle) 지역포럼이 개최되었고, 여기에서 경제 분야에서부터 환경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되었음.

이번 포럼에서 러시아가 제시한 ‘허브’라는 구상안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음. 러시아가 제시한 이 개념은 석유·가스 인프라와 관련이 있지만, 사실 운송, 통신 및 지역 간 상호관계에 이르기까지 넓게 적용될 수 있음. 동 포럼에서 유럽 국가들은 교통, 통신, 의료 서비스 및 국제 관광 개발에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만, 러시아는 천연자원의 채굴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또한, 석유·가스 산업 발전을 통해 다른 산업 분야를 발전시키며, 북극에 러시아 허브를 만드는 개념을 제시하였음.

2018년 제12차 북극서클 지역포럼은 올해 12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임.

(<http://www.arctic-info.ru/news/10-05-2018/na-farerah-rossiya-predstavila-kontseptsiyu-razvitiya-severnyh-habov/>)

• 러시아 국방부, 북극 횡단 통신라인 연장으로 국방력 향상 예정 (2018.4.23)

러시아 국방부는 북극 횡단 통신라인 개설 준비를 시작하였음. 광섬유 케이블인 통신라인은 세베로모르스크(Severomorsk)에서 안디르(Anadyr, 추코트카 소재)와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트스키(Petropavlovsk-Kamchatsky, 캄차트카 소재)를 지나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까지 연결됨. 본 라인을 통해 많은 양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으며, 이것은 러시아의 국방력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될 것임.

수중 시스템의 구조 체계는 이미 개발되었으며, 현재 작업은 준비단계에 있음. 이번 북극 통신 케이블 설치야말로 이제까지 미비했던 북극의 유선 통신 문제를 해결할 있을 것으로 기대됨. 케이블의 총 길이는 북극지역(5,700km)과 극동지역(7,000km)을 합쳐 총 12,700km임. 북극 횡단 통신 케이블은 노르웨이에서 중국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의 작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이것으로 러시아의 국방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http://www.arctic-info.ru/news/23-04-2018/minoborony-prolozhit-transarkticheskuyu-liniyu-svyazi/>)

북극국가 정책



중국

• 제3차 한·중·일 북극사무 고위급회담 상하이에서 성공적 개최 (2018.6.8)

지난 6월 8일 제3차 한·중·일 북극사무 고위급회담이 상하이에서 개최되었음.

3국 대표로 참석한 중국 외교부의 가오핑(高风) 북극사무 특별대표, 한국 외교부 강정식 북극협력대표, 일본 외교부의 에이지 야마모토 북극대사는 북극의 변화가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북극의 평화와 안정,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하였음.

3국은 지난 1월 중국정부가 발간한 ‘중국의 북극정책’을 환영하며 북극 과학 연구에 대한 협력을 도모하고 북극 이사회의 작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음. 회담 후 3국은 북극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음.

한·중·일 고위급 북극회담은 2015년 11월 제6차 한·중·일 정상회의의 성과 중 하나로서 3국 간 북극정책에 관한 교류를 증진하고 북극에서의 실무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장으로 평가됨. 금년 5월에 개최되었던 제7차 한·중·일 정상회의의 연합선언을 통해 동 회담에 대한 지지 의사가 표명되기도 하였음.

한편 제4차 한·중·일 북극사무 고위급 회담은 내년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임.

(http://www.fmprc.gov.cn/web/wjbxw_673019/t1567099.shtml)

• 광외남국상학원(广外南国商学院), “중국-유럽 북극연구센터(CNARC)” 가입 (2018.6.6)

지난 5월 23-25일 노르웨이 트롬쇠에서 “북극에서의 통합적 해양관리(Integrated Ocean Management in the Arctic)”라는 주제로 제6차 중국-북유럽 협력 심포지엄이 개최되었으며, 광외남국상학원(广外南国商学院)의 중국-북유럽 북극연구센터(CNARC) 가입이 허락되었음.

남국상학원은 CNARC 가입을 통해 북극연구 관련 국제협력 분야에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으며, 향후 중국과 북유럽 국가들의 경제 및 교육협력, 국제정치, 원주민 언어문화 연구 등 새로운 분야에서 연구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북극사무에 관한 지원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중국의 북극사무를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CNARC는 2013년 12월 설립되었으며 중국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5개국 간의 북극연구 및 학술교류 협력의 장을 제공하고 있음. 사무국은 중국극지연구센터에 설치되어 있음.

한편 제7차 중국-북유럽 협력 심포지엄은 내년 5-6월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될 예정임.

(http://news.ycwb.com/2018-06/06/content_30024859.htm)

• 라오청대학(聊城大学), 제1회 북극해연구포럼 개최 (2018.5.29)

지난 5월 27일 중국의 라오청대학(聊城大学)은 “제1회 북극해 연구포럼 - 국제사머니즘 및 고랭지구 인류학 이론 및 연구”를 통해 국내외 전문가 10여명과 함께 극지사회과학 연구에 관하여 논의하였음.

라오청대학은 중국의 북극개발 참여 요구에 따라 전국 최초로 “북극해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극지사회과학연구에 주력하고 있음. 동 센터에서는 인류학, 고고학, 역사학, 원주민발전, 국제관계 등 다양한 영역을 연구하고 있음.

라오청대학 총장은 지난 1월 발표된 <중국의 북극정책> 백서에서 강조된 바 있는 중국의 북극연구 참여의 중요성 및 북극개발 참여에 대한 중국의 이념에 대해 언급하며 “중국은 북극지역 내 주민과 토착민들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의 독특한 생활방식 및 가치관을 보존하는데 힘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음. 또한 “북극지역 내 주민역량의 강화, 경제사회발전 촉진, 교육 및 의료수준 제고를 위한 북극국가들의 노력을 존중한다는 전제 하에 북극자원을 개발 이용하여 북극지역 주민들과 토착민들이 북극개발의 진정한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이번 “북극해 연구포럼”은 라오청대학 북극해연구센터가 추진한 최초의 국제학술행동으로 국제사머니즘 및 고랭지역 인류학 이론과 연구에 관한 학술보고 및 토론, 사제간 교류의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됨.

(<http://epaper.qlwb.com.cn/qlwb/content/20180529/Articell01005FM.htm>)

• 중국해양학회 북방해전문위원회 성립대회 및 빙상실크로드 심포지엄 개최 (2018.6.7)

지난 6월 5일 중국해양학회 북방해전문위원회 성립대회 및 빙상실크로드 심포지엄이 중국 장춘에서 개최되었음. 이번 심포지엄은 중국해양학회 주최로 중국 해양학회 북방해전문위원회 및 <동북아경제연구>저널이 진행하였음.

회의에서 중국해양학회 북방해전문위원회가 성립되었으며, 회의에 참가한 전문가 및 학자들은 빙상실크로드에 관한 토론을 진행하였음. 중국의 빙상실크로드 연구성과는 <동북아경제연구>를 통해 발표될 예정임.

중국해양학회 북방해전문위원회는 중국 북방 해양사업의 발전을 추진하고 중국-러시아, 중국-캐나다, 중국과 동북아 국가들 간의 빙상실크로드 공동건설을 추진할 예정임. 또한 북방의 4개 성(省)과 신장 지역이 바다를 향해 뻗어 나갈 수 있도록 경제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중국의 북방과 동북아, 중국 남방해 간의 협력적 기초를 도모할 계획임.

한편 빙상실크로드 개통 및 북극 녹색경제통로 공동건설은 동북아 지역 및 빙상실크로드 연안국가의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관련 지역의 경제 발전을 가능케 하는 역사적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http://www.changchunymimin.com/article/13322.html>)

• **글로벌 북극: 국제과학기술 협력의 신 좌표**
 – 2018 상하이포럼, 북극사무 중 중국의 책임에 주목 (2018.5.28)

지난 5월 26-28일 사흘간 “변화하는 세계에서 아시아의 책임”이라는 주제로 상하이 국제컨벤션센터 및 복단대학 광화빌딩에서 진행되었던 2018 상하이포럼이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음. 상하이포럼은 한국고등교육재단과 복단대학이 2005년부터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는 국제학술대회로 올해는 세계 각지에서 온 천 여명의 정치, 경제, 학계, 언론계의 인사들이 참석하였음.

다양한 주제로 진행된 라운드테이블 및 패널세션, 특별대담 등을 통해 북미, 북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일대일로” 연안국가 등의 경험을 공유하였고, 대국관계 및 “일대일로”, 인적자원, 녹색거버넌스, 녹색금융혁신, 디지털건강, 고령화, 극지개발 및 관리 등 부문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음.

특히 “글로벌북극”이라는 의제로 진행된 세션은 금년 1월 26일 <중국의 북극정책> 발표 이후 국내외의 과학계 및 학술계의 공동 염원에 따라 마련된 수준 높은 대화의 장이었던 것으로 평가됨.

러시아, 캐나다, 영국,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의 권위 있는 과학자들은 최초로 중국에서 북극의 글로벌 거버넌스 및 아시아 특히 중국이라는 대국의 책임에 대하여 합동 토론을 진행하였음. 이로써 북극 내 과학기술연구 분야에서의 국제적 협력과 관련하여 중국의 참여증대가 요구되었고, 중국의 북극연구와 관련하여서는 전면적인 시스템을 갖춘 과학기술설비 마련이 촉구되었음.

(<http://sh.people.com.cn/n2/2018/0528/c176739-31633525.html>, <http://www.shanghaiforum.fudan.edu.cn/index.php?c=news&a=detail&aid=1876>)

북극비즈니스/북극해항로/자원개발

• 북극의 4개 항구, 도로 건설과 함께 주요 기반시설의 현대화와 확대로 화물 물동량이 늘어날 것임 (2018.5.11)

러시아 대통령이 주요 인프라 개발 계획을 승인하였음.

이 계획은 화물 운송에 필요한 교통로인 '서-동'(West-East), '남-북'(North-South)의 개발을 2024년에 시행한다는 내용임. 이를 위해 우선 국제적 교통로인 '유럽-서 중국'(Europe-Western China)이 지나가는 러시아 지역의 건설과 현대화, 러시아 항만의 가동력 향상, 북극항로의 개발 및 북극항로를 통한 화물 수송량 증가(800만 톤)가 필요함.

이 외에도 철도를 이용한 컨테이너 수송 시간의 단축 (극동에서 러시아 서부 국경까지 7일), 통관용 컨테이너 화물량의 확대 (4배), 그리고 주요 복합 화물-물류 센터의 설립, '바이칼-아무르'(Baikal-Amur) 철도와 시베리아 횡단 철도의 운송 능력 1.5배 확대 (1억 8천만 톤까지) 및 '아조브-흑해'(Azov-Black Sea) 수역에 있는 항구로 갈 수 있는 철길을 놓을 계획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북극 지역의 주지사들이 항구 기반시설과 관련된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러시아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며, 이것은 북극의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됨. 이와 관련해서 아르한겔스크(Arkhangelsk)는 이미 새로운 심해항 건설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네네츠 자치구(NAO)는 북극권 지역의 '인디가'(Indiga) 마을에 현대식 항구를 건설할 계획이며, 무르만스크(Murmansk)는 교통 허브의 확대를 꾀하고 있음. 야말-네네츠 자치구(YaNAO)는 사베타(Sabetta)항에 기상 수문 조건을 신속히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임.

이외에도 러시아 경제 수준을 높이기 위해 철도, 항공, 도로, 항구 및 운하 인프라를 확대하고 현대화할 계획임.

(<http://www.arctic-info.ru/news/11-05-2018/chetyre-arkticheskikh-porta-zhdut-bolshie-peremeny/>)

• 상트페테르부르크 발틱조선소, 원자력 쇄빙선 ‘아르티카’호의 계류 실험 시작 (2018.5.7)

프로젝트 22220에 따라 ‘발틱 조선소(Baltic plant)’에서 원자력 쇄빙선 ‘아르티카’(Arctic)호가 완공되었으며, 선박 건조, 장비 설치 및 조정과 같은 성능을 검사하는 계류 실험을 시작하였음. 이것은 쇄빙선에 하중을 가한 상태에서 에너지 장비와 보조 기구를 테스트하고, 선박의 생명 안전 시스템과 설비 점검을 실시하는 것임.

현재 쇄빙선에 연료를 공급한 상태이며, 계류 실험 전에 ‘아르티카’(Arctic)호에 레이더 장비가 부착된 안테나 탑을 설치하였음.

현재 프로젝트 22220에 따라 다목적 원자력 쇄빙선 3척이 건조되고 있으며,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쇄빙선으로써, 북극에서 러시아의 주도권을 보장해 줄 것으로 기대됨.

이들 중 ‘아르티카’(Arctic)호와 ‘시베리아’(Siberia)호는 이미 진수 되었으며, ‘우랄’(Ural)호는 아직 건조 중에 있음. ‘아르티카’(Arctic)호의 인도 시기는 2019년 중순이며, ‘시베리아’(Siberia)호는 2020년 11월, ‘우랄’(Ural)호는 2021년 11월로 예정되어 있음.

(<http://www.arctic-info.ru/news/07-05-2018/na---baltiyskom-zavode---nachalis-shvartovye-ispytaniya-atomnogo-ledokola---arktika/>)

• ‘로스아톰’(Rosatom)사, 러시아 북극항로 운영자의 자격을 부여 받을 예정임 (2018.4.27)

드미트리 로고진(Dmitry Rogozin)이 북극 개발위원회 상임이사회 회의 중에 “북극항로와 그 인접 지역의 종합적인 개발에 필요한 전권을 국영기업인 ‘로스아톰’(Rosatom)사에 부여하는 법안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고 전함.

‘원자력 에너지관련 국영기업’에 관한 법령의 개정 절차가 이미 이루어졌으며, 가까운 시일에 러시아 정부가 이 법안을 국회에 상정할 예정임.

2017년 12월 러시아 대통령은 이미 ‘로스아톰’사에 북극항로와 그 인접 지역의 국가 재산을 관리하고, 해상 활동 분야에서 국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격과 전권을 부여하려는 정부의 제안을 지지한바 있음. 북극항로의 관리는 북극 개발 문제를 다루는 국가위원회의 조정 이후에 실현될 것임.

2018년 4월 24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북극 개발위원회 상임이사회 회의에서 러시아 북극지역의 통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공위성 개발 문제, 국가 프로그램인 ‘러시아 북극지역의 사회-경제 개발’의 실행과 북극의 국경 인프라 개발 및 기술 혁신이 논의된바 있음.

(<http://www.arctic-info.ru/news/27-04-2018/zakonoproekt-o-nadelenii---rosatoma---funktsiyami-operatora-smp-vskore-vnesut-v-gosdumu/>)

• ‘가즈프롬’(Gazprom)사와 ‘윈터셸’(Wintershall)사,
우렌고이(Urengoy) 석유-가스 콘덴세이트 매장지의
새로운 아치모프(Achimov) 퇴적층 지구 개발 계획 (2018.4.19)

러시아 ‘가즈프롬’(Gazprom)사와 독일 ‘윈터셸’(Wintershall)사가 우렌고이(Urengoy) 석유-가스 콘덴세이트 매장지의 아치모프(Achimov) 퇴적층 4A 지구와 5A 지구의 우선순위 시설물 건설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임. 이것은 2021년 9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 1,430억 루블이 투자될 것임. 이미 ‘가즈프롬’(Gazprom)사는 우렌고이(Urengoy) 매장지의 아치모프(Achimov) 퇴적층 2A 지구에서 아치모프(Achimov) 가스를 채굴하고 있음.

제 1 지구에서는 ‘아침가즈’(Achimgaz)사의 채굴이 진행 중이며, 제 3, 4 및 5 시험 지구는 개발 준비 중에 있음.

‘윈터셸’사는 우렌고이, 아치모프 퇴적층 4A와 5A 지구의 개발 프로젝트에 25.01%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OMV’사는 ‘가즈프롬’사의 자산을 교환하는 조건으로 24.98% 지분을 얻게 됨.

제 4, 5 지구는 2020년에 가동될 예정이며, 2034년에 최대 생산량인 400억^m의 가스 채굴이 가능할 것임.

우렌고이(Urengoy) 지역의 아치모프 퇴적층에는 1조^m가 넘는 gas와 4억 톤 이상의 가스콘덴세이트(카테고리 C1)가 매장되어 있음.

(<http://www.arctic-info.ru/news/19-04-2018/gazprom---i-wintershall-planiruyut-razrabotku-novyh-uchastkov-achimovskih-otlozheniy-urengoyanskogo-ngkm/>)

• ‘북위도 철도’(North latitude railway) 프로젝트, 러시아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 (2018.5.14)

최근 야말(Yamal) 지역에서 ‘북위도 철도’(North latitude railway) 프로젝트의 핵심요소인 오비(Ob)강을 건너는 교량 건설(살레하르트(Salekhard)와 라비트난기 (Labytnangi) 도시 사이에 위치) 기공식이 열렸음.

이곳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기공식 전에 ‘북위도 철도’(North latitude railway)와 ‘보바넨코보-사베타’(Bovanenkovo - Sabetta) 철도 건설을 주제로 회의를 개최하였음.

막심 소콜로프(Maxim Sokolov) 러시아 교통부장관 대행은 “오늘의 교량 건설이 러시아 북극지역의 교통 인프라 개발(철도 및 운송)과 관련된 거대 프로젝트인 ‘북위도 철도’ 프로젝트를 실현하는 시작이 되었다. 이 프로젝트로 러시아의 많은 부분이 실제로 변화할 것이다. 프로젝트를 통해 러시아에 대한 투자와 통관지로서의 입지가 높아질 것이다.”라고 강조하였음.

드미트리 코빌킨(Dmitry Kobylkin) 야말-네네츠 자치구(YaNAO) 주지사는 “오비강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야말(Yamal)의 도시와 마을을 러시아 전역과 이어줄 것이다. 이 새로운 다리는 러시아의 많은 지역과 수백만 명의 러시아 인들에게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넓고, 위대하고, 성공적인 길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하였음.

야말(Yamal)에서 이루어진 기공식이 갖는 의의는, 경제 발전을 위해 항구 시설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으며, 북극 항로를 통한 물동량의 증가와 충분한 교통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임. ‘북위도 철도’는 바로 야말 북극 지역의 교통 인프라를 현대화하는데 필요한 주요 교통로가 될 것임. 이 철도는 접근이 어려웠던 새로운 매장지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해줄 것이며, 화물 수송 거리를 단축시키고, 사베타(Sabetta)항을 통해 대양(Ocean)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고, 시베리아 횡단 철도의 물동량을 줄여줄 것임.

(<http://www.arctic-info.ru/news/14-05-2018/sverhzadacha-proekta-severnny-shirotnyy-hod-----pridat-impuls-v-razvitii-ekonomiki-vsey-strany/>)

• 그린피스, '남극 오지의 미세플라스틱 및 유해 화학물질 오염 논란' 보고서 발간 (2018.6.6)

그린피스 연구진은 지난 1월부터 3개월 간 남극 오지에서 물과 눈 표본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대다수의 표본에서 미세 플라스틱이나 유해 화학물질이 발견됐다고 발표하였음.

8개 해수면 표본 중 7개에서 초미세합성섬유를 비롯한 미세플라스틱이 들어 있었고, 9개의 눈 표본 가운데 7개에 과불화화합물(PFAS) 등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가능한 농도로 함유돼 있었음.

연구진은 이러한 화학물질은 많은 산업 공정과 소비재에서 폭넓게 사용되며, 이는 야생동물의 번식과 성장문제에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하였음.

이번 연구 결과는 지구상에서 가장 외딴 지역인 남극조차도 인간이 만든 오염에서 예외일 수 없으며 지구의 모든 곳이 오염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함.

이러한 화학물질은 먹이사슬을 타고 올라가면서 야생동물에 매우 위협적일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인간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한편 이번 보고서는 남극 대륙 주변 바다에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한 세계적 캠페인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으며, 이러한 해양보호구역 조성은 오는 10월 호주에서 열리는 남극해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임.

(<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18/jun/06/antarctica-plastic-contamination-reaches-earths-last-wilderness>)

• 터키, 2019년까지 남극 과학기지 설치 계획 (2018.6.18)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터키 대통령이 지난 1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2019년까지 남극에 과학기지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음.

터키는 작년 2월, 남극 과학기지 건설 프로젝트의 기술·경제 타당성을 검토하는 연구팀을 구성한다고 발표함으로써 터키의 남극 과학기지 건설안을 처음으로 공론화했음. 현재까지 3번의 탐사팀을 파견했으며 일명 ‘green base’라고 불리는 터키 남극기지 설립을 위한 최적의 장소 조사를 실시했음.

현재 터키는 남극조약 체결 참가국으로 옵서버 지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극 과학기지를 완공함으로써 남극 조약 협의 당사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https://www.rt.com/news/430077-turkey-antarctica-base-erdogan/>)

• 일본, 남극해에서 포획한 임신한 밍크고래 122마리 죽여 (2018.5.30)

일본이 국제포경위원회(IWC)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남극해에서 연구용으로 포획한 밍크고래 333마리 가운데 임신한 암컷 고래는 122마리였고 미성숙 개체는 114마리였던 것으로 밝혀짐.

국제포경위원회는 1946년 상업적 포경을 전면 금지했지만 일본은 '과학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남극해와 북태평양에서 주로 밍크고래를 포획해 왔음. 이에 호주 정부는 일본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고, 재판소는 2014년 일본의 고래잡이는 과학적 조사 목적이 아니라며 포경허가를 중단하라고 명령하였음.

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 재판은 제소하는 국가와 제소 당하는 국가 쌍방의 동의가 없으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은 고래나 참치를 포함한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 소송에 응하지 않기로 유엔에 공식 통보함으로써 '과학적 연구'라는 입장으로 잔인한 고래 포획을 계속하고 있음.

(<https://www.nytimes.com/2018/05/30/world/asia/whales-japan.html>)

• 국내 연구진, 세계 최초로 남극 빙봉 붕괴 과정 규명 (2018.6.14)

극지연구소, 미국항공우주국(NASA), 캐나다 워털루대, 미국 컬럼비아대·텍사스대가 참여한 국제공동연구팀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남극의 빙봉 붕괴과정과 해수면 상승과정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고 밝힘.

그동안 빙봉의 두께가 얇아지거나 붕괴되는 모습은 여러 차례 관측되었지만 붕괴가 시작되는 전체 과정은 밝혀진 바가 없었음.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로 빙봉 밑바닥에 따뜻한 바닷물이 유입되면서 이로 인해 빙봉이 녹고 움푹 파인 물결이 만들어지게 됨. 이후 빙봉의 윗부분도 파이게 되면서 두께가 점차 얇아져 균열이 생기게 되고 이 균열이 점차 커져 빙봉이 붕괴되는 것으로 밝혀짐.

연구팀은 2016년 4월에 붕괴된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인근 난센 빙봉을 분석해 이 같은 연구 결과를 얻었으며, 인공 위성, 쇄빙연구선 아라온호가 관측한 자료 등을 활용하였음.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정확한 해수면 상승 예측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http://www.etimes.net/service/etimes_2011/ShellView.asp?ArticleID=2018061403001800346)

• 미항공우주국(NASA), 남극의 얼음 변화와 해수면 상승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결과 발표 (2018.6.14)

NASA는 최근 '빙상 질량 균형의 비교 실험 결과'를 네이처지에 발표하였음 이 연구는 최근 남극 대륙의 얼음 질량 변화를 가장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연구에는 24개의 인공위성, 42개의 국제기구, 80명의 과학자들이 참여하였음.

연구팀은 1992년부터 2017년까지 남극 빙상의 질량 균형을 조사한 결과 남극 대륙에서의 얼음 손실로 해수면이 7.6mm증가한 것으로 분석함. 또한 2012년을 기준으로 뚜렷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 2012년 이전에는 매년 약 838억 톤의 남극 얼음이 줄어들던 것에 비해 2012년 이후에는 매년 약 2,414억 톤이 사라져 그 이전보다 사라지는 얼음의 비중이 약 3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이 영향으로 2012년 이전에는 매년 해수면 상승이 0.2mm에 불과하였는데 비해 2012년 이후에는 남극의 얼음 손실이 증가하면서 해수면이 매년 0.6mm 높아진 것으로 진단됨.

이처럼 남극얼음의 녹는 속도가 중요한 것은 해수면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NASA에 따르면 남극대륙의 얼음이 해수면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세계의 다른 모든 육지 얼음 공급원보다 약 7.5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극대륙의 얼음이 모두 녹으면 세계 해수면은 58m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https://www.nasa.gov/press-release/ramp-up-in-antarctic-ice-loss-speeds-sea-level-rise>)

• 남극대륙 서부 지각, 급격한 속도로 융기 중 (2018.6.21)

남극대륙 서부의 얼음이 녹으면서 무게가 가벼워져 지각이 매년 4.1cm 융기 중인 것으로 관측됨. 지각 상승률이 이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21세기 동안 지각이 총 8m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러한 결과는 빙하를 안정화시킴으로써 해수면 상승 속도를 늦추는 긍정적 영향을 미침

전문가들은 서남극에 있는 대륙 빙하가 전부 녹으면 전 세계 해수면이 약 3m 상승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였음. 하지만 최근 기반암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면서 수면 아래에 있던 빙산을 끌고 나와 수면 위로 올라온 대륙 빙하가 많아졌고 이로 인해 붕괴 위험이 줄어들음.

연구책임자인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윌슨 교수는 이러한 남극대륙 서부의 지각 융기 속도는 특이하고 매우 놀랍다면서 판도를 바꿔놓는 '게임체인저'라고 언급하였음.

그러나 남극대륙의 복잡한 지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융기 현상이 남극의 빙상 보호에 희소식인 것은 분명하지만 남극 대륙 전체가 그렇다고 판단 할 수는 없다고 강조함.

(<https://phys.org/news/2018-06-bedrock-west-antarctica-surprisingly-rapid.html>)

• 일본 문부과학성, 남극지역 관측사업 관련 회의 개최 (2018.5.25)

지난 5월 25일 문부과학성 특별회의실에서 제85회 남극지역관측 통합추진본부 수송계획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음.

이번 위원회 회의의 안건은 지난 회기 회의의 의사내용, 제58차 월동대와 제59차 관측대의 활동결과 및 현황 보고, 제59차 남극지역 관측을 위한 수송협력, 2018년도 남극지역 관측사업 예산에 대한 개요, 제60차 남극지역 관측실시계획의 개요(안), 제61차 남극지역 관측계획 개요(초안), 기타 안건 등임.

또한, 5월 30일 제39회 남극지역관측 통합추진본부 관측·설치계획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음.

동 회의에서는 2017년 외국기지 파견 결과에 대한 보고, 남극협약 제7조 제5항의 사전통보를 위한 전자정보교환 시스템(EIES)(안) 등이 논의되었음.

(http://www.mext.go.jp/a_menu/shinkou/nankyoku/detail/1404903.htm, http://www.mext.go.jp/a_menu/shinkou/nankyoku/detail/1405186.htm, http://www.mext.go.jp/a_menu/shinkou/nankyoku/index.htm)

• 한·중·일 북극 협력에 거는 기대

2018년 5월 23일자로 북극과학협력강화협정(Agreement on Enhancing International Arctic Scientific Cooperation)이 발효되었다. 이 협정은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이 마주하게 된 위협과 도전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합의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북극에서의 과학 협력은 한·중·일 3국에게 중요하다. 한·중·일 3국은 2013년에 함께 북극이사회의 정식옵서버 국가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북극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을 공유해 왔으며, 북극과학기지와 쇄빙연구선 등 북극과학연구 인프라를 통해 북극권 국가와 과학 협력을 강화해 왔다. 이번 협정의 발효를 통해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극권에서의 과학 연구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배경하에 지난 6월 7~8일 이틀 동안 중국 상하이에서 한·중·일 3개국간 정부·민간 차원에서 각각 중요한 북극협력 회의가 개최되었다. 우선 6월 7일에는 한·중·일 3국 북극 관련 연구기관 및 대학 네트워크인 북태평양 북극연구기관협의회(NPARC) 제5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NPARC 회의는 한·중·일 북극 전문가가 모여 정책, 과학, 산업 등 관련 분야 북극정책 및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2014년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처음 설립되었다. 올 해는 상해국제문제연구소와(SIIS)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공동 주관 하에, 한·중·일 북극 관련 정부, 학계, 연구소 등 약 30개 기관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각국의 북극 정책과 북극 활동 현황, 북극과 관련된 구체적인 협력 추진 가능성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제5차 북태평양 북극연구기관협의회(NPARC) 회의〉

자료: KMI

또한 6월 8일에는 제3차 한·중·일 정부 고위급 회담인 ‘한·중·일 북극협력대화’가 개최되었다. ‘한·중·일 북극협력대화’는 2015년 11월에 개최된 제6차 ‘한·중·일 3개국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에 반영되어, 매년 3개국이 돌아가면서 개최해 오고 있다. 특히 올 해는 한·중·일 3국이 새로운 북극정책을 동시에 내놓거나 내놓을 예정이어서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3개국이 추진할 새로운 북극정책을 공유하고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로서 성과가 있었다. 중국은 최초의 북극 정책인 ‘북극백서’를 2018년 1월에 발표했다. 백서를 통해 일대일로(一帶一路)의 북극으로의 확장인 ‘빙상실�크로드(Polar Silkroad)’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5월 15일 제3차 해양기본계획(‘18~’22)을 확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북극연구 강화, 북극 해양환경 보호, 북극 해양경제 촉진, 북극해 안전 및 안보 확보, 북극 국제협력 촉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향후 5년동안의 북극정책을 확정했다. 우리나라 역시 2013년 북극정책 기본계획의 성과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북극협력 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내 북극연구 및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 해 ‘북극활동 진흥 기본계획(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한편 ‘한·중·일 북극협력대화’에서는 3국간 북극과학협력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함으로써 북극과학 협력강화협정 발효에 맞춰 새로운 북극과학협력으로 나아가기로 합의했다.

두 회의 모두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설립·개최된 것으로 기존에는 두 회의가 별개로 개최되었지만, 올 해는 처음으로 같은 장소에서 연계해 개최되어 민간 실무차원에서의 북극 협력 의제 논의와 정책 제안이 정부 차원의 협력으로 반영·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양 회의가 한·중·일 북극 이슈와 정책을 논의하는 협력플랫폼으로서 본 궤도에 올랐음을 의미하며, 나아가 향후 북극 현안에 공동대처하고, 과학, 정책, 산업 분야에서 공동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수 부연구위원

• 참 고

1. 관련기사,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42811013613504>, 2018.6.25 검색